

이기는 삶

백성이 원하는 세상

요즘 정치의 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 완전히 흑백논리가 판을 친다.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극단적인 편 가르기로 국민의 의식을 갈라놓는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주소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에서 야당의 무조건 반대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야당이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되어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버리는 행위는 보복성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저급한 작태이다.

천만다행(千萬多幸)인 것은 국민의 힘을 두려워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탄을 면하는 방법이다. 서로 물고 뜯는 개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선조 임금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세종대왕의 정치철을 거울삼아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삼자. 다음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내용이다.

그때에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의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에 남

긴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다.'
 문) 왕께서 즉위하시면서 가장 처음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의논하자' 고 하였다.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문) 왜, 왕께서 직접 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답)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문) 왕의 뜻과 맞지 않는 신하도 있지 않습니까?
 답)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서열 출신, 무관 출신, 관노 출신 등을 주요 관직에 임명하여 각기 다른 장점이 어우러져 펼치는 창의적인 정책을 펼쳤다.)
 문) 개혁을 단행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의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

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17년간 토론 후, 1430년 전국 17만 2806명의 여론 조사 결과, 조선왕조의 조세제도를 개혁하였다)
 문) 백성은 왕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답)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설령 오해와 그릇된 내용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
 문) 왕께서 꿈꾸시는 태평성대는 어떤 것입니까?
 답)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17년간 토론 후, 1430년 전국 17만 2806명의 여론 조사 결과, 조선왕조의 조세제도를 개혁하였다)
 문) 백성은 왕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답)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설령 오해와 그릇된 내용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
 문) 왕께서 꿈꾸시는 태평성대는 어떤 것입니까?
 답)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극치의 선한 마음이며 아름다운 마음이다. 극치의 아름다운 마음, 극치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영이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뜨거운 불이 오고 시원한 것이 느껴져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엎드려 상 하체 근력 강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근육이 줄어들어 중·장년층의 교감신경은 체온이 높으면 땀샘을 열고 혈관을 확장해서 열을 방출하며, 체온이 낮으면 그 반대로 해서 열을 보충한다. 요가로서 근육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신선한 채식음식,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다. 근력을 키우면 혈액순환과 면

역력이 높아지므로 추위에도 체온유지에 도움이 된다.

비행기 자세 1.2

동작①: 무자세 (몸의 균형 잡아줘 집 중력 향상) 두 발을 모아 선 채로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댄다. 천천히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호흡한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②: 양팔을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숨을 내 쉬며 상체와 한쪽 다리를 동시에 위로 들어 올린다. 가슴을 충분히 들어 올린다. 2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손바닥을 턱밑에 3.4

동작③: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을 포개 턱밑에 대고 몸 전체를 바르게 펴준다. 척추와 기립근에 힘을 주어 의식을 두고 호흡을 조절한다.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늘려준다. 20초 유지, 3회.

하체 들어 올리기~

주의: 허리와 어깨에 힘을 빼고 허벅지의 힘으로 올린다.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동작④: 다리를 모으고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 허벅지 안쪽 내전근에 의식을 두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긴장을 놓지 않고 내려온다. 20초 유지, 5회.*



격암요록 新해설

제87회

정도령이 죽을병자를 감로해인을 내려 살리고 전 세계인들 축복된 한강수 실으려 하룻밤에 천척의 배가 오리라

歌辭總論(가사총론)

君弱臣強民嬌妻 國악신강민교리에
 吏殺太守無所憐 邑吏태수무소기탄
 日月無光塵霧漲天 日월무광진무창천
 罕古無今天災 罕고무금대천재로
 天邊地震飛火落地 天邊지진비화락지
 三災八亂并起時 삼재팔란병기시에
 時時亂어는 世人세인들아
 三年之凶二年之疾 삼년지흉이년지질
 流行瘟疫萬國時 유행은역만국시에
 吐瀉之病喘息之疾 토사지병천식지질
 黑死枯血無名天疫 흑사고혈무명천질
 朝生暮死十戶餘 一 조생모사십호여일
 山嵐海霧萬人多死 산람해무만인다사
 大方局手 大방국수업서
 五運六氣虛事 오운육기허사되니
 無名惡疾免 무명악질면할소냐
 當履奄麻常誦呪 당복엄마상송주로
 萬怪皆消海印 만괴개소해인일세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며 백성은 관리에게 아첨하고 관리가 태수(太守)를 죽이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 먼지 안개(스모그)가 하늘을 뒤덮으니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느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대재앙(大災殃)으로 하늘의 변괴(變怪)와 지진(地震)으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치고 삼재팔란(三災八亂)이 함께 일어나는 시기를 아는가?

세상 사람들아! 삼년간 흉년이 들고 이년간 과실이 돌아 염병과 괴이한 전염병이 급속도로 만국을 휩쓸 때 두고 실사하는 병과 천식과 같은 질병과 흑사병과 피가 마르는 이름 모를 천질(天疾)로 인하여 아침에 생생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으

니 열 집 가운데 한 집만 겨우 살아남으리라. 산과 바다에 숨어있던 마귀의 독한 기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나 그 어떤 명의(名醫)의 이름난 처방도 소용이 없어서 오운육기(五運六氣)도 허사가 되니 이름 모를 악독한 질병을 어찌 면할 것인가? 항상 말마경(滅魔經)을 외우며 염마(정도령)가 내려주는 해인을 받아먹어야만 모든 괴질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狂風淫雨激浪怒濤 광풍음우격랑노도
 地震火災不虞之患 지진화재불우지환
 毒瘡惡疾殺人強盜 독창악질살인강도
 飢饉餓死 飢근아사여기저기
 戰爭大風忽起 전쟁대풍홀기하야
 自相踐踏哭哭聲 자상踐담호곡성에
 安心安신못할 世上세상일세
 三人一夕雙弓 삼인일석쌍궁알소
 訪道君子修道人 방도군자수도인아
 十勝勝地弓乙 십승복지궁을일세
 無道大病 무도대병 걸인 홀자들
 不死海印 불사해인나왔다네

음란의 풍조가 세찬 비바람 속에 거센 물결과 성난 파도처럼 미친 듯 일어 세상에 유행하고 지진 화재 등 생각도 못한 우환이 생기며 독창(독한 피부병) 악질이 돌고 살인강도가 만연하며 곳곳에 기근이 들어 굶어죽고 전쟁의 큰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로 밟고 밟아여 죽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소리에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세상이다.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뒤을 수(虜)자의 파자. 쌍궁(雙弓)은 궁궁(弓)을 의미한다.
 말세에 목숨을 보전하려면 뒤을 수(虜)

자와 궁궁(弓=십승)을 알아보소. 도를 찾는 군자님들 수도인들이여 십승의 복된 땅이 궁을(정도령)일세. 무도대병(無道大病) 걸린 자들이, 불사영생의 해인이 나왔으니 한시바빠 알아보소. 무도(無道)라 함은 말과 행동이 막되어 막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신하가 임금을 잊고 있는 것,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세상에 충효열(忠孝烈)이 없어 대병(大病=죽을 수밖에 없는 위중한 병)에 걸린 것인 즉 대인대의(大仁大義)한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으면 대병이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니라.

和氣東風 和氣悲 화기동풍구진비에
 七年大旱 칠년대한바나리듯
 萬國勝地 江山下 만국승지강산하에
 甘露喜雨 蘇生 감로희우민소생을
 惡疾多死免 악질다사면하라고
 全世騷動 海運開 전세계동해운개로
 一夜千艘出航時 일야천소출항시에
 漢江水 한강수를시러가며

十勝物品海外出 십승물품해외출을
 六次九月 육대구월이오리라

화기동풍이 불어오면(정도령이 오시어 불사영생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면) 오랜 슬픔(쇠병사장을 면할 수 없는 슬픔)이 다하여 칠년대한(七年大旱)에 비 내리듯 만국의 십승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감로가 기쁜 비처럼 내려 민초들을 소생시키리라. 칠년대한에 대한 고시는 중국 산나라 시조인 탕 임금시절 칠년 동안 가뭄이 들어 비 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것을 말한다. 고치기 어려운 질병으로 무수한 인명이 다 죽음을 면하려고 전 세계가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다의 운수가 열려 전 세계에서 배가 몰려오나니 하룻밤에 천 척의 배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생명수로 축복된 한강수를 실어가며 십승(十勝)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에 되니 이는 육대구월(六次九月)이 오면 알리라. 천지개혁이 되면 알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고서연구가 박명하 선생님의 유튜브 강연 안내



동영상 재생목록 '고서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기는 길

죄를 담당하는 승리자

나는 선생님미 죄를 담당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담당을 해 줄 수 있던 말인가. 그 메카니즘을 알 수도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를 하면 몸이 무거워졌다가 선생님을 만나면 몸이 가벼워졌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한 뒤에야 비로소 선생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누군가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잔뜩 살아 있는 내가 누군가를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일량한 자존심을 꺾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누구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내 친구가 대법원장 아무개야, 내 후배 아무개가 요번에 경제부총리가 되었어, 내 아들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으며 등등 잘나가는 사람과 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낸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말하면서 자기가 그분의 제자이니 자신 또한 문어서 훌륭한 해지길 바란다.

그런데 어떤 존재를 선생님이로 인정하기는 그래도 쉬우나 구세주로 인정하기는 무척 어렵다. 더욱이 신흥종교의 교주를 그렇게 인정하거나 나야가 세인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 교주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은 거의 자신을 반쯤은 죽여야 되는 일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

선생님이 제시하는 영생의 원리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한다는 것이라고 하니까 마음만 중요하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육신은 이 세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막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선생님은 마음에 의해서 피가 변화되는 경우가 팔구십 퍼센트이며 나머지 십 퍼센트는 물과 공기 등에 의해 변한다고 하셨다.

1992년 경 미국 TV 방송에 영생을 주장하는 단체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한다는 특별한 원리가 없었고, 영생을 하려면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들에게 어떤 의사가 문기를 이 세상에는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물과 음식 등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걸 먹고 마시고 숨 쉬며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 호에 계속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